

한 눈으로 보는 경제			11일
코스피지수	2124.09	↓	-13.14
코스닥지수	661.37	↓	-3.23
환율 (원 · 달러)	1166.80	↑	+9.3

김명근 기자의 파리 통신 | e스포츠 빅이벤트 ‘월드컵 결승전’ 현장에 가다

1만5000석 매진·치열한 승부…파리, Party!

유럽팬들, 전날밤부터 뜨거운 응원(여자)아이들 소연 오프닝공연 후끈 월드컵, 유로대회 급 이벤트로 성장

“Let’s go, G2!”

9일(현지시간) 늦은 밤 프랑스 파리 베르시 역 부근에서는 유럽 청년들이 삼삼오오 모여 “G2”를 외쳤다. 다음날인 10일 근처 아코르 호텔 아레나에서도 똑 같은 구호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흡사 축구팀 응원 같은 이 구호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챔피언십’(이하 월드컵) 결승에 오른 유럽 리그(LEC) 팀을 응원하는 목소리였다.

“유럽에서 국기와 같은 축구를 따라 잡으려면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이미 e스포츠를 다른 스포츠처럼 즐긴다.” 이번 결승을 보기 위해 폴란드에서 프랑스까지 왔다는 e스포츠의 열혈 팬 안드레이 포코로브스키(21)씨의 말이다.

포코로브스키씨의 말처럼 월드컵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2009년 서비스를 시작한 LoL은 10년 넘게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PC온라인게임이다. 장기 흥행의 첫 번째 비결은 단연 e스포츠다. 2011년 팬을 위한



1만5000여 전석이 매진되는 등 응원 열기가 뜨거웠던 ‘2019 월드컵’ 결승이 열린 프랑스 파리 아코르 호텔 아레나 전경, 월드컵 결승에 진출한 유럽의 G2 e스포츠를 응원하는 유럽 e스포츠 팬들, ‘소환사의 컵’을 들어 올리며 팬의 환호에 답하고 있는 우승팀 편플러스 피닉스의 도인비(김태상)(왼쪽부터 시계방향).

이벤트로 시작한 월드컵은 이제 세계적인 행사로 성장했다.

사실 2011년 초대 월드컵은 소박(?)했다. 독립 대회가 아닌 스웨덴의 컴퓨터 축제 ‘드림핵’의 부대행사로 열렸다. 초청전 형식으로 출전 팀도 8개 뿐이었다. 하지만 이후 월드컵은 매년 빠른 속도로 성장해 현재는 기존 스포츠 이벤트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규모를 키웠다. 지난해 한국에서 열린 월드컵 결승은 순식간에 9960만 명에 달했다. 이는 미국 슈퍼볼 시청자수와 비슷한 수치로, 발표 당시 큰 화제를 낳았다. 대회 총 상금도 지난해 기준 645만 달러(한화 약 75억원)를 넘어섰다.

올해 파리 대회도 흥행에 성공했다. 결승이 열린 아코르호텔 아레나의 1만5000여석이 매진될 정도로 응원 열기가 뜨거웠다. 마스터카드와 루이비통, 레드불, 오포, AXE, 스테이트팜 등이 올해 대회 후원사로 나섰다. 특히 월드컵 등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의 트로피 제작을 협업한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소환사의 컵’ 보관함을 제작·공개해 주목받았다.

매년 선보이는 오프닝 공연도 화제다. 2014년에는 세계적 밴드 이매진 드래곤스가 주제를 불렀고, 올해는 케일리 루소와 크리스 코스탄자, 그리고 한국의 아이돌그룹(여자)아이들의 소연이 무대를 장식했다.



사진제공 | 라이엇게임즈

대회가 열린 파리 시도 행사 지원에 적극적이었다. 장 프랑스와 마르탕 파리 부시장은 “파리는 ‘유로 2016’, ‘라이더컵 2017’같은 대회를 개최했고, 2024년에는 파리올림픽도 열게 된다. 이번 월드컵 결승 역시 같은 급의 이벤트로 간주했다”고 말했다.

한편, 라이엇게임즈는 LoL e스포츠 10주년을 맞는 2020년 월드컵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대규모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존 니덤 라이엇게임즈 e스포츠 총괄은 이와 관련해 “내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월드컵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규모가 될 것이다”고 귀띔했다.

파리(프랑스) |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LCK는 중요한 시장, 프랜차이즈화 고려”

(LoL 한국리그)

존 니덤 라이엇게임즈 e스포츠 총괄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아코르호텔 아레나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챔피언십’(이하 월드컵) 결승에서 만난 존 니덤 라이엇게임즈 글로벌 e스포츠 총괄은 이같이 말했다. LCK의 프랜차이즈화에 대한 걸림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프랜차이즈는 일정 참가비를 내는 대신 팀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유럽리그(LEC) 리브랜딩이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어떤 부분을 말한 것인가.

“시청자가 늘고, 팬의 반응이 좋다. 중점을 둔 점은 북미와는 다른 유럽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었다. 이번 월드컵에 대한 유럽 팬의 반응이 좋은 것을 보면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컴캐스트가 e스포츠 합작법인을 설립했는데.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시청자에게 좋은 경험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컴캐스트는 일반 스포츠 분야에서도



존 니덤 총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다만 LCK는 ‘e스포츠 아버지’라고 생각할 만큼 중요한 시장이다.”

-한국 롤파크 운영에 대한 평가는.

“굉장한 성공이라고 본다. 경기 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LoL 팬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파리(프랑스) | 김명근 기자

LPL ‘편플러스’ 월드컵 우승

중국이 2년 연속 월드컵 정상을 차지했다. 편플러스 피닉스는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아코르호텔 아레나에서 열린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챔피언십’(이하 월드컵) 결승에서 유럽의 G2 e스포츠를 3대 0으로 꺾고 우승했다.

이로써 편플러스는 올해 처음 월드컵에 출전해 우승까지 이른 ‘로열로더’가 됐다. 특히 편플러스가 속한 중국 리그(LPL)는 지난해 인빅터스 게이밍(IG)에 이어 2년 연속 우승하며 한국 리그(LCK)에 이어 새로운 LoL e스포츠 강국으로 떠올랐다.

파리(프랑스) | 김명근 기자

액체괴물서 유해물질 100개 제품 리콜 조치

봉소·방부제 등 기준치 초과 검출

장난감 액체괴물(슬라임)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돼 시중에 판매 중인 100개 제품이 리콜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시중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수거명령을 내렸다. 87개에서 봉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고 16개 제품은 방부제,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 가스제가 함께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한 13개 제품은 봉소 기준치는 충족했으나 8개 제품에서 방부제가,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스제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리콜 대상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정호 기자 jjay@donga.com

맥도날드 19일 ‘주방 공개의 날’

맥도날드는 전국 310여개 매장의 원재료 관리 및 조리과정을 공개하는 ‘내셔널 오픈 데이: 주방 공개의 날’ 행사를 19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11일부터 맥도날드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점포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주방 공개의 날에 참여하면 원재료의 보관 및 관리, 버거가 만들어지는 주방의 위생 관리와 조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맥도날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내용을 반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조주연 맥도날드 사장은 “맥도날드를 믿고 찾는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현장서 안전하고 맛있는 제품을 제공하려 노력해온 임직원의 마음을 담아 전국 레스토랑의 주방을 보여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교육·퍼즐

에듀윌

‘공기업 취업 시크릿 노트’ 무료 배포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쿠키.kr WWW.매직스도쿠.kr

공기업 채용 막막하다면…“NCS부터 공략”

2019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 결과에 초록불이 켜졌다. 올해 신규 채용한 정규직 수가 총 2만3800여 명으로 채용 목표의 95.2%에 달하는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순서대로 채용 규모가 컸다.

공기업은 안정성과 연봉, 워라밸 측면에서 취업 준비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가운데 그만큼 경쟁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미리 취업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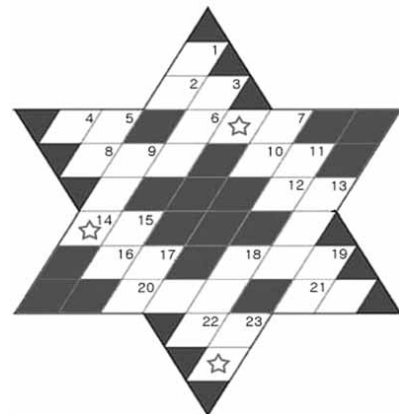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 채용 전형에서 중요하면서도 미리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NCS다. NCS란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일컫는 말로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한 것이다. 자소서부터 필기시험, 면접 등 모든 전형에 NCS가 적용된다.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 평가와 직무수행능력 평가로 나뉘는데 직업기초능력 평가는 직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초능력을 실제 직무환경에서 어떻게 발휘하는지를 평가하며 직무수행능력 평가는 선발인원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평가하게 된다.

에듀윌은 공기업 취업 성공을 꿈꾸는 취업생을 위해 ‘공기업 취업 시크릿 노트’를 무료로 배포 중이다. 에듀윌이 제작한 시크릿 노트는 NCS 직업기초능력 10개 영역을 모두 다뤄 각 기업별로 출제되는 모든 영역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또한 이론으로 기본 실력부터 탄탄히 쌓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도 눈에 띈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은 에듀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 낱말문제



■ 가로 열쇠

02.같은 목적으로 여럿이 모인.
04.벗짚·밧짚·갈대 등으로 지붕을 인 집.
06.서로 잘 어울리지 아니함.
08.남편이 죽고 홀로 사는 여자.
10.번뇌의 얽매임에서 풀리고

미혹의 괴로움에서 벗어남. 12.처녀가 시집을 감. 14.저녁때의 해.
낙조. 16.걸어 다님. 18.거미줄.
20.무엇을 빨거나 씻어 더러워진 물.
21.특별히 응송하게 대접함. 또는 그런 대접. 22.물건을 써서 꾸밈.

■ 세로 열쇠

01.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
03.아내와 함께 동행함. 05.음식에 양념·식료품·향신료 등을 넣어 맛이 더 나게 함. 07.다들질을 그치고 좋지 않은 감정을 품. 09.멀리 떠난 남편을 기다리다가 죽어서 되었다는 돌. 11.어떤 상황이나 구속 따위에서 빠져나옴. 13.집에서 빛은 술. 15.길이나 자리, 물건 따위를 사양하여 남에게 미루어 줌.

17.바둑, 장기, 쌍륙 따위에서 말을 씀. 18.온갖 종이를 파는 가게. 19.고향을 그리워하며 생각함. 23.나이가 젊고 기운이 좋은 남자.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를 이어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타의 이름이 됩니다.

